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삶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고통 속에서 가끔씩 행복을 느낄 뿐이죠. 사람은 왜 사는 것인가요? 왜 저는 태어났을까요? 있지도 않은 행복을 찾아야 하고 왜 괴로움을 항상 참아야 하는 것인가요?

세상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할 수 있는 조건보다 불행할 조건이 너무 많죠. 행복해 보이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죠. 부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으며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A** 생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있으신군요. 지루지루와 미찌루 이야기 아시지요.

에서 사는 사람이 많은지 의문을 가지고 사유해 보시고,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맞벌이 부부 8년차에 주말마다 있습니다. 다섯 살 된 아들은 친정집에 있습니다.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아들을 데려올 계획이예요. 그런데 남편의 양육방식으로 종종 가슴이 아프곤 합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인지 남편은 아이에게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거부적입니다. 남편이나 저희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A** 부부지만 살다보니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내담자님의 말도 남편의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8년 정도면 남편의 성격을 아실 겁니다. 화가 낫을

**희노애락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며 왜 사는 겁니까?**

**부처님은 스스로 경험하기 위해 산다 했어요**

행복을 찾아 산 넓고 물 건너다 집 처마에서 찾은 파랑새 이야기 말입니다. 구름 많이 있는 날 태양은 사라지고 없는 건가요? 단지 구름에 가려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일 뿐 태양은 언제나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 뒤에 늘 밝게 빛나고 있는 자성(自性) 즉, 본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지 궁금하다 하셨지요? 부처님께서도 이유가 있어 태어났고,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행복함은 행복함대로 잘 느껴보세요.

혹시 더운 날 시원한 바람 한 자락에, 추운 겨울 따끈한 차 한 잔으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슬쩍 건너뛰어도 좋은 일에 인상을 쓰며 기분 상했던 적은 없었던가요.

고통이나 행복감 모두 내가 만드는 맘의 작용이라고 사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고정됨이 없는 미술 같은 프리즘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은 조건과 조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늘 변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진리를 아신 분이요, 앞으로 왜 죽음의 공포와 병의 아픔 속

경우에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니 대화를 피해 주시는 것도 서로 상처를 덜 받는 한 방법입니다.

어린 아들은 부모로서 충분히 사랑을 주시며 남편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남편 역시 아내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큰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들에게 하듯이 남편에게도 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차차 익숙해지고 머지않아 반응도 올 겁니다. 남편이 변하길 바랐으면 좋겠지만 먼저 자신이 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남편도 서서히 변하실 겁니다.

모든 부부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지만 모두 이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살아야 하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헤어진다며 부부라는 울타리에서 살아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노력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혼 후 생각 여러 가지 문제 보다는 더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절이 있다니 자주 들려 마음 찾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일로해서 8년의 결혼생활을 되돌아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 가사만 스쳐도 마음안정에 큰 도움

## 희망법당 탐방 봉은사 병원봉사부

강남에 자리한 서울의료원, 환자들 사이로 주황조끼를 입은 봉사원들이 바빠 움직인다. 바로 봉은사 병원봉사부 소속 보살들이다.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보다 부담하기 힘든 공익진료를 수행하는 병원이다. 서울의료원은 1977년 건립돼 사설병원보다 장비·시설 및 인력 등이 열악하다. 봉은사 병원봉사부(연등장 문수월)는 이러한 서울의료원에서 2006년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3시간씩 노력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봉은사 병원봉사부의 서울의료원 봉사활동은 병원일손들기와 법당관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병원일손들기는 주로 전산화 미비 등으로 인해 각 원무과에 차트 등을 나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 등을 진행한다.

차트를 각 층 원무과 등에 직접 전해주는 등 힘들 터인데도 봉사하는 보살들의 표정이 밝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건강함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고맙죠.” (심자력 보살)

봉은사 병원봉사부의 노력봉사는 매일 진행된다. 점이 특징이다. 법당에서 법회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상담, 환우관리 등 전반적인 일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오전·오후에 나눠 6-7명의 봉사부원들이 돌아가며 봉사하고 있다.

봉은사 병원봉사부는 강남 인근 지역 불자 외에 멀리 구리, 오산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부원들 등 7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육아 등 바쁜 가사일 와중에도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부원들은 “다 따지면 뜻하죠~제치고 해야죠~”라며 밝게 웃는다.

병원봉사부 연등장 문수월 보살은 “봉은사 봉사부 부원들이 각자 봉사날이 정해지면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멀리 살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지도법사 묘수 스님의 폐유기도 및 환자상담, 법회 등이 진행된다. 묘수 스님도 환자 상담, 호스피스 활동을 위해 남양주 봉선사에서 서울의



묘수 스님(왼쪽)과 문수월 보살(오른쪽) 등 봉은사 병원봉사부 부원들이 불자 환자를 찾아 광명진언을 외우는 등 기도를 올리고 있다.

## 하루 여섯 시간 주 오일 자원봉사... 차트 이동·환우관리 다양 매주 화요일 묘수 스님의 기도와 법회 인기...환자와 상담도

료원까지 먼 길을 오가고 있다.

묘수 스님은 “봉사부원들이 미리 병원 라운딩을 하며 환자 중 불자이거나 기도 등을 원하는 신청을 정리해 놓으면 매주 상담과 기도 등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활발한 신도들의 봉사 참여에도 병원 봉사활동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많다. 병원 측의 까다로운 제약과 타종교 환자들의 시선 때문이다.

묘수 스님은 “보통 병원에서 봉사는 반기지만 포교는 꺼리는데 공공의료기관이어서 포교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

했다.

스님은 서울의료원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호스피스 병동의 한 거사와의 인연을 들었다.

묘수 스님은 “간암 말기였던 한 거사님이 계셨는데, 말할 힘도, 염주 돌릴 힘이 없는 와중에 기도 시 일모양으로 관음정진하고, 또 힘겹게 염주 한 알 돌리시던 모습이 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환자들에게는 스님 가사 자락만 보고, 또 스쳐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올 10월 서울의료원 불교법당 건립 4주

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봉은사 병원봉사부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역 균형 발전과 의료복지 확대 등으로 서울의료원이 2011년 3월까지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수월 보살은 “현재 법당이 별관에 자리하고, 또 입구가 계단이어서 환자들이 찾기 힘들었다. 매월 본관 강당에서 법회를 열었는데 이전 후 본관에 자리할 법당에서 불자와 환자들을 위한 법회, 봉사활동 등을 보다 활발히 펼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

###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 ④ 재의식편 (전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33-1959, 720-1836



# 봉 축

## 국태민안 및 국운융창 기원 영산대재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 대한불교선각종 모후산 도원사 4주년 기념법회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광주·전남 불교사암연합회

■ 주 최 : 모후산 도원사 봉행위원회·신도회

■ 후 원 : 화순군사암연합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선각종전국교구본사, 선각종중앙포교원 (완도수양사), 불교TV,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화순군계사회, 한국디자인(기획사), BBS광주불교방송, 광주일보, 호남일보

■ 초청가수 : 일운스님(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50호 영산 보존회장), 법능스님, 김상배, 현진우, 우연히, 정현, 7080뮤지컬(경규와 뮤직), 통기타(주권기), 신명화, 헤랑

■ 일 시 : 2010년 9월 11일(토) 오전 9시 영산대재 / 오후 4시 산사음악회 및 신도노래자랑

■ 장 소 : 전남 화순 모후산 도원사

■ 문의전화 : 061)372-1047, 061)433-2233 총무원 / 신도회장 011-636-4110